

나가오카 겐타로(長岡健太郎)

간병보장네트 직원

1981 년생 / 2007 년~ 변호사

대학의 법학부 재학 중, 지역에서 혼자 사는 신체장애인의 간병을 했다.

그 시기에 법률이 개정되어 간병을 했던 분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거나 돌봄 시간이 줄어들 뻔한 일을 겪으며 장애인 문제에 관한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후지오카 변호사와 공저 《장애인의 간병 보장 소송이란 무엇인가! 지원받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위하여》 외.

【임군결 사무국장 자기소개】

임군결 (林君潔/린준지엔)

타이베이시 신활력자립생활협회 사무국장

국가문관학원 전문 강사, 타이베이시 정부 심신장애인 권리옹호위원회  
위원

골형성부전증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몇 번이나 뼈가  
골절되었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줄곧 부모님의 간병을 받았습니다.

타이베이대학 사법학부를 졸업한 후, 집 밖은 장애물이 많았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장애인과 가족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4 살 때 더스킨 장애인 리더의  
연수를 받으며 자립 생활 운동에 관하여 배우고 사회 운동에 매진하기로  
정했습니다. 귀국하여 2007 년에 대만 최초의 자립 생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권리 조약을 실행하는 일과 청년 장애인  
리더를 육성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소아 이력

전 '다시함께센터' 상근변호사(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기관임)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변호사

전 '법무법인 해마루' 구성원 변호사

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상근변호사

현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자문변호사

다테이와 신야(立岩 真也)

본 심포지엄의 코디네이터

1960년생. 전공: 사회학.

리쓰메이칸대학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 교수 및 생존학연구소 소장.

저서: 《삶의 기법 - 가족과 시설을 떠나 생활하는 장애인의 사회학

제3판》(2012 생활서원), 《돌봄의 일 - 마을에서 지내다/을

지원하다》(2021 지구마신서) 외.

후지오카 쓰요시(藤岡 毅) 변호사

간병보장네트 공동대표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며 지자체와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활동 등을 펼친다.

저서 «Q&A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 지식 - 자주 있는 상담  
사례와 판례로 생각하기-»

나가오카 겐타로 변호사와 공저 «장애인의 간병 보장 소송이란 무엇인가!  
지원받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위하여» 외.

## 【옹국언 변호사 자기소개】

옹국언(翁國彦)

변호사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인연이 닿아 많은 심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에 관한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아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신체장애인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과도 비슷합니다. 이를 통하여 사람은 어떻게 스스로의 결함과 대화하고, 인간성의 결함과 공존하는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은 장애와 결함 때문에 자아를 실현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간병보장네트 10년간의 발자취

간병보장을 생각하는 변호사와 장애인의 모임 전국 네트  
변호사 나가오카 겐타로

# 1. ‘간병보장’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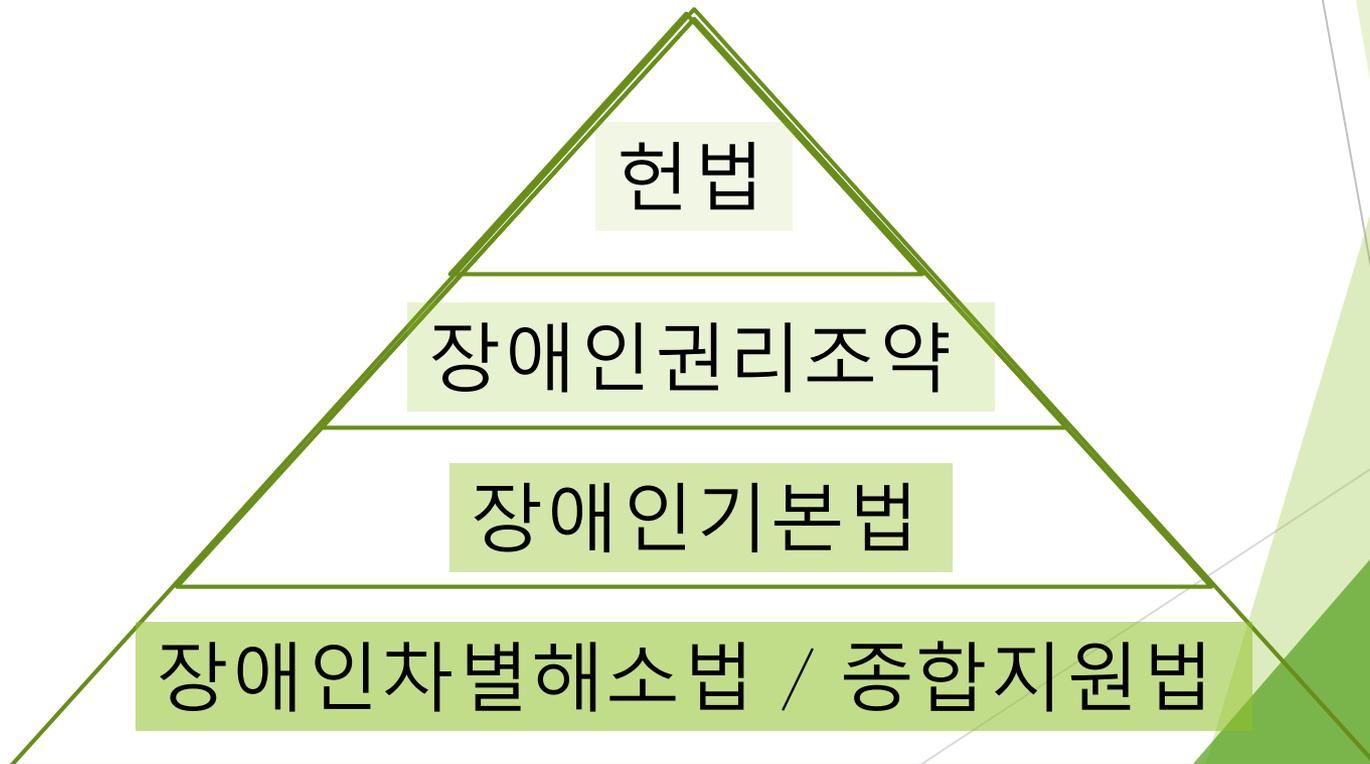
장애가 있는 사람이 본인이 살고 싶은 지역에서 본인다운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간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하는 활동.

↓ 즉,

장애인종합지원법상의 장애 복지 서비스로서 간병 급여를 필요한 만큼 수급할 수 있는 것.

# 공적 간병을 받을 권리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과  
평등하게 자신이 선택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는 헌법을 비롯한 법률로 보장된다.



## 2. 목표

### 장애인권리조약 19조 ~자립 생활 및 지역 사회의 포용~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평등한 선택의 기회를 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생활할 평등한 권리를 지니는 것을 인정한다’ 고 확인.



또한 ‘국가가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명언.

# 장애인종합지원법 1조

‘장애인 및 장애아가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개인으로서의 존엄에 어울리는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목적으로서 명기되었다.

cf. 장애인자립지원법

‘자립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개인의 존엄에 어울린다고 할 수 없는 처분은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이 된다.

# 간병 지급 결정 시의 개별 대응 원칙

‘법은 장애인의 개별 감안 사항 조사를 토대로 어떠한 지급량을 정할지에 대하여 각 장애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즉,

장애인의 사정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간병 보장은 정형적/추상적인 틀로 정해서는 아니 되고, 개별 요구 사항에 맞는 필요한 지급량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

# 3. 간병보장네트의 출범

2012년 11월 30일



변호사회관에서의 출범 집회 모습

# 전국 각지에서 간병보장을 실현한다

그러기 위하여 변호사와 지원자, 장애 당사자가 각자의 지식과 힘을 합쳐 행정 당국과 협상한다.

# 간병보장네트의 활동 스타일

심사 청구나 취소 소송, 의무화 소송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간병 급여를 신청하는 단계부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지자체와 협상한다.

↓ 흔히

**‘신청일발주의’ 라고 한다**

# ‘신청일발주의’의 주의 사항

- 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 도우미의 간병 일지
  -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한 보고서
  - 의사의 진단서
  - 도우미의 진술서
  - 가족의 진술서

# 신청일발주의의 주의 사항

## ②명확한 이론으로 무장한다

- 장애인 이 간병을 받을 권리의 근거
- 각 논점에 관한 주장
  - ‘돌봄’ 시간의 간병 취지
  - 가족에 대한 간병 강제성의 부당성
  - 간병 보험과의 병급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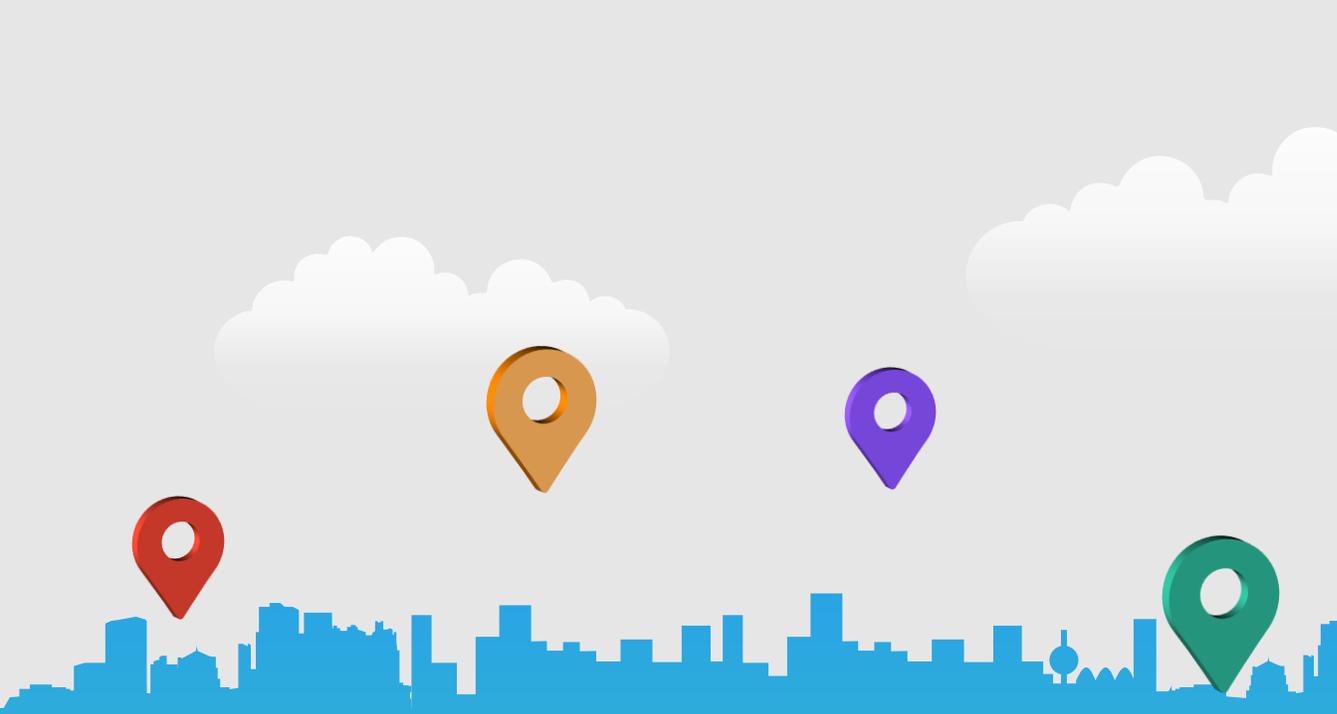
# 간병보장네트 10년간의 성과

- 전국 각지에서 60명 이상의 장애인을 지원.
- 47개 도도부현 모두에서 24시간/일의 지급량을 달성(2017년 11월).

1. 우리 쪽 당사자인 옥씨는 심각한 근육위축증을 앓고 있습니다. 옥씨의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셨고 현재 독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칙상 옥씨가 30 분마다 개인 보조원의 도움으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베이 시정부는 개인 보조원 신청 규칙을 견지하여 신체장애인의 개인 보조원 신청 시간은 한달에 60 시간 이상 초과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에 2 시간에 불과합니다. 옥씨는 개인 보조원에게 도움을 받는 시간은 심각히 부족하여 매일 오후 5 시부터 다음 날 새벽 5 시까지 오른팔로 자신의 머리를 계속 지탱해야 합니다. 팔이 저려서 몸이 쓰러지게 되면 앉은 자세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배설물 속에 눕게 됩니다. 사실 수십 년 동안 옥씨가 누워서 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개인 보조원 도와주는 시간이 부족해서 옥씨가 배설물 줄이기 위해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같은 원인으로 옥씨가 복건치료도 받을 수가 없고 현재까지 코비드 19 백신도 접종 못하고 있습니다.
2. 옥씨는 2020 년 때 정식으로 신베이 시정부에게 매일 24 시간 개인 보조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옥씨가 법적으로 소송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2021 년 법률부조기금회 변호사의 협조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우리가 옥씨의 소송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타이베이 고등 행정법원에서 심리한지 1 년을 넘었습니다. 재판 절차법정은 9 번 했지만 최종 변론은 아직 안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으로 2023 년 상반기에 판결을 선판할 것이다). CPRD 19 조에 따라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법원 심리하는 과정에 신베이 시정부하고 논의하는 중점은 이 공약에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관은 획일적 기준으로 규칙을 만들고 당사자에게 개인 보조원의 신청 시간은 60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마땅한 것인가? 주관 기관은 아무런 평가 없이 개인의 장애 또한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매일 24 시간 개인 보조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마땅한 것인가? 신베이 시정부는 재무 예산 부족하다고 재무 항변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옥씨의 신청을 허락해 주면 다른 장애인도 따를까 봐 신청을 거절한 것 같습니다.

3. 본 사례는 대만에서 장애인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CPRD 19 조에 관한 첫 행정 소송입니다. 심리 과정에 법관이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판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법관에게 옥씨의 곤란한 상황 그리고 개인 보조원에 대한 수요를 알려주기 위해 법정을 열 때 옥씨가 화상통화를 통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론을 할 때 옥씨가 직접 법정에 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CPRD 13 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사법적인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 법률부조 기금회 소개

법무부 魏貫宇  
brucewei@laf.org.tw  
2022.11



# 📖 법률부조 기금회 - 성립 배경

사법원의 기부로 설립한 민간운영 비영리 재단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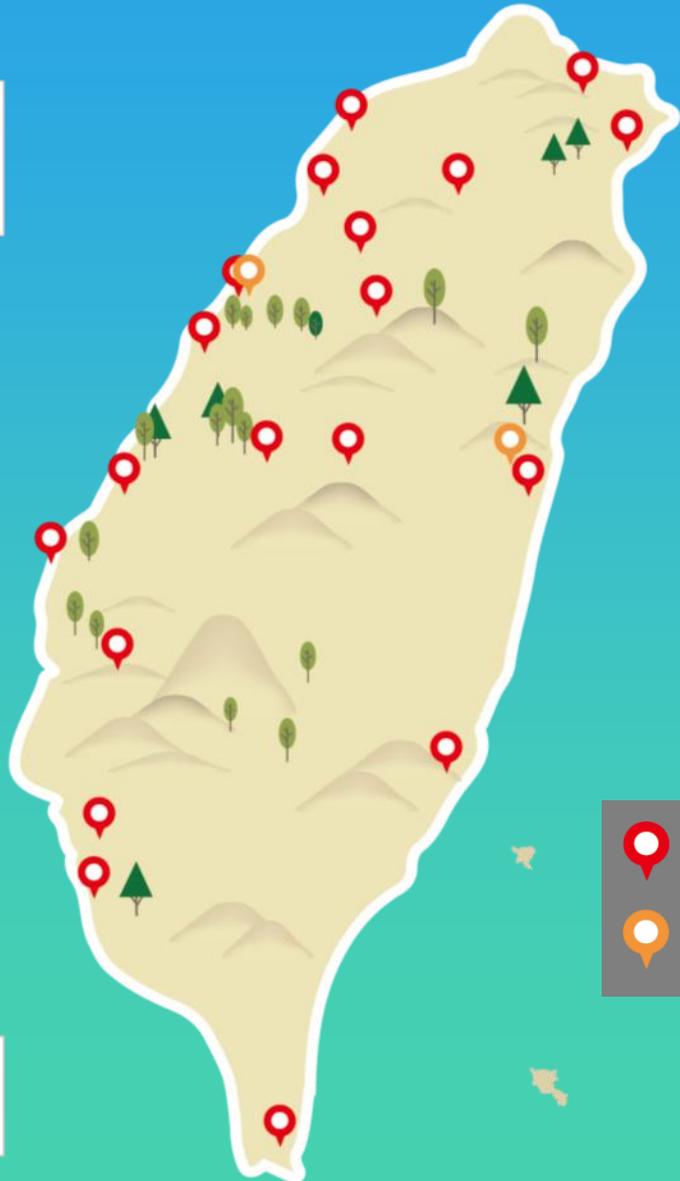
\*일본의 최고 재판소, 한국의 대법원과 비슷함

《법률부조법》에 따라 설립

목표 :  
재력이 없거나 다른  
원인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자에게 법률  
부조를 제공함



# 📖 법률부조기금회 - 조성



-  분회
-  원주민 센터

📅 2021



전국 24 곳 기관이 있다



329 명 직원  
17 명 전직 변호사



4,560명 변호사가 부조 변호사 담당  
전국 10,990 명 공인변호사 있다



# 📖 2021 부조 안건



현재 개인 보조원 시간 인상 쟁취 케이스 3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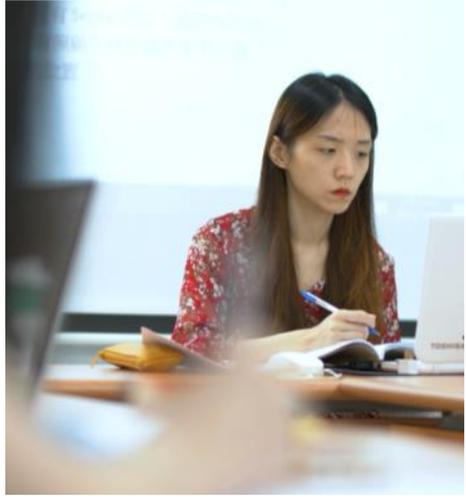
# Taiwan & CRPD

대만은 연합국(UN) 위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권리 협약(CRPD)>을 서명할 수 없다. 2014년 대만정부가 <장애인 권리 협약 실행법>을 통과하여, 장애인 권리 협약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였다.

<장애인 권리 협약 실행법>의 내용 중에 정부가 장애인에게 법률부조를 제공해야 하며 법률부조 기금회를 통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현재 본 회에서 장애인에게 법률부조를 제공하고 있다.



# 장애인 케이스 처리 방식



대만에서 개인 보조원이나 장애인에 관한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에 관한 법적 규정이나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장애인이 장애인 단체를 통해 본 회에게 연락할 수 있다. 장애인에 관한 케이스를 잘 살펴보기 위해 전문 인원이 법적 의견과 부조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부조 케이스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잘 아는 변호사에게 맡기고 장애인을 위해 그들의 권리를 쟁취한다.



법률부조 기금회의 장애인부조 팀의 구성원들이 정기적으로 장애인 케이스를 추적하고 변호사에게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에  
翁國彥 변호사가  
대만 케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 台灣での障がい者の自立生活運動の報告

사무국장

林君潔 リン チュン チェ

# 자기 소개

- 1、 타이베이 시 출생, 선천적 골형성부전증을 앓고 있다.
- 2、 7살 때 초등학교 입학 거절 당했음. 8살 때 일반 초등학교 입학. 기관에서 8개 월 거주한 적 있었음.
- 3、 국립 타이베이 대학교 법학과 졸업
- 4、 일본에 가서 DUSKIN아시아 심신 장애인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참여했다.
- 5、 미국 국무원 장애인 권리 보장 프로젝트 방문 대표
- 6、 현재 타이베이 시 자립생활협회 총 이사, 타이베이시 장애인 권익 보호회 위원, 법률부조기금회 전문위원회 위원



# 지역 사회에서 중도 장애인의 선택?

- 1、가족들의 간호
- 2、자비로 외국인 간호 고용
- 3、짧은 시간의 지역 개인(Personal Assistance) 협조 서비스.( 예: 집안 간호 서비스, 개인 보조원)
- 4、거주형 간호 기관
- 5、기타?

## 개인(PERSONAL ASSISTANCE) 협조 서비스 인원 부족에 의한 영향

- 1、서비스 시간 부족하기 때문에 식사할 때 빨리 먹어야 한다. 그러나 골형성부전증 환자에게 음식물 삼키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다
- 2、개인 보조원이 없으면 밤에 누워서 잘 수 없기 때문에 20여 년 동안 의자에 앉아서 잘 수밖에 없다. 낮에 개인 보조원이 있을 때만 2-3시간 누워서 잘 수 있다.
- 3、하루 12 시간 동안 자신의 배설물 속에 담겨 있어서 욕창이 생겼다. 작년에 3cm 크기의 욕창을 제거하기 위해 입원을 했다. 수술 후에 잘 보살피지 못해서 아직 완치되지 못했다.
- 4、20여 년 동안 집안에 박혀 있고 평시에 전화기하고 라디오를 통해서만 외부 세계와 연결할 수 있다. 밖에 세상을 접촉 못하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를 알지 못하여 낙오자가 되었다.
- 5、악렬한 생활 환경 속에서 심신의 피로와 퇴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 중대사건

- 1, 전기 난로에 쓰러져서 화상 입은 적이 있다.
- 2, 모기, 바퀴벌레에게 자주 물게 되는데 저항할 수 없다.
- 3, 몸을 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이나 구급차 부르는 경우가 많다.
- 4, 서비스 시간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원과의 관계가 긴장되고 폭력 사건도 종종 일어났다.
- 5, 백신을 받도록 도와 주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올해 5월에 코로나 확진되었다.



# 촉진 과정

- 1、법률부조기금회 CRPD프로젝트를 통해서, 무료 변호사를 신청하였다.
- 2、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고 당사자가 밖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화상으로 법정 참여하는 것을 신청하였다.
- 3、당사자 법정에 나갈 때 보조원 2명의 도움을 신청하였지만 법원에게 거절을 당했다. 출정했을 때 또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법률부조기금회 사이트에 올리고 지적하였다.
- 5、사이트에 올린 내용은 기자에게 발견되었고 익명으로 취재 진행하였다. 보도 내용은 큰 파문을 일으켰다.

## 발견 및 변화

- 사법원의 「법률부조 필요한 비용 지불 조치」 제2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르면, 법률 부조 케이스에 의한 비용은 지원 시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사자는 이 규정에 따라 보조원 비용을 신청하였다.
- 법원 내 휠체어 좌석의 설치를 촉진하였고...
- 사법인원 훈련 교육에 초청을 받았고...
- 당사자는 코로나 확진돼서 격리 병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중도 장애인의 입원 간호 이슈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고 제도의 변화를 촉진시켰다.

법원 내 휠체어 좌석의 설치를 촉진하였다.



# 사법인원 훈련 교육장소 화장실 내 무장애 시설 설치



# 당사자 확인되고 출원 후에 온라인 좌담

- 1、중도 장애인의 입원 간호 인력 문제
- 2、의료 및 간호 인원에 대한 무장애 훈련 부족
- 3、입원 시 간호 비용 지나치게 비싼 문제
- 4、제도의 변화를 촉진 중



人權非星期三 側記

主講 | 玉 姐  
主持 | 黃怡碧  
與談 | 林君潔

(不該)被法規政策  
存而不論的障礙人權

## ■ 1년 반 넘게 법정 절차의 논점

A、신베이 시 사회국이 개인보조원의 신청 제한 한 달 60시간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규정한다고 주장한다. 중앙정부와 미팅했는데 이 규정을 이미 폐제되었다고 한다

B、신베이시 사회국이 재무 문제로 한 달 60시간 이상의 보조원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신베이시보다 재무적으로 더 어려운 행정구에서 80-120시간의 보조원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C、중앙정부와 회의했을 때 자립생활 서비스 지원 예산은 매년 남아 있다고 하였다.

D、위생복지부 2021 상반기 통계자료에 의하면 신베이시 사회국의 개인 보조원 지원 신청 인수는 23명에 불과하다.

# 간호보장 네트워크와의 만남 및 협력



# 캠퍼스 내 개인 보조원 쟁취 성공

- 사건 : 한부모 가정 배경의 중도 근육위축 장애인이 입학에 관련된 케이스다. 당사자가 캠퍼스 내 긴 시간의 개인 보조원이 필요하지만 학교 측에게 거절을 당하였다. 학교의 주장은 당사자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배워야 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 교실에 있는 다른 학생에게 요청하면 된다고 한다. 화장실에 가거나 식사는 중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알바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학교 측에서 주장하고 있다.
- 쟁점 :
  1. 교육부에서 대학교 내 장애인 학생을 위한 예산이 있다. 그러나 이 예산은 학교에서 주로 행정 일을 도와주는 알바생의 비용으로 쓰고 있다. 알바생이 중간 쉬는 시간이나 특정 상황에서만 장애인 학생을 도와주고 있다. 학교 측대외적으로 캠퍼스 내 개인 보조원 서비스 없다고 한다.
  2. 장애인을 위한 개별 교육 계획 IEP는 없다. 교사는 개강 전에 학생과의 간단한 면담 후 교육 내용을 스스로 정하고 있다.
  3. 교사, 입법위원 등 여러 방면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사람은 학교에서 이미 알바생을 제공했는데 전화로 도움 요청하면 되는데 왜 굳이 개인 보조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 과정 및 결과



- 과정 : 입법위원은 협조회를 소집하였고 당사자와 변호사 함께 출석하여 행정부문과 교섭하였다.
- 결과 : 캠퍼스 내 120시간의 개인 보조원 서비스를 쟁취하게 되었고 임금 또한 인상하게 되었다.

# 현재와 미래...

- 1、본 협회에서 지금 신베이 시에 다른 근육위축자를 위해 법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2、우리는 방금 전에 언급한 두 케이스를 같이 진행하면서 다른 장애인 단체와 같이 중앙정부에게 압력을 주는 결과, 2022년 10월부터 신베이 시는 100시간의 개인 보조원 특별 케이스 신청은 받기 시작하였다.
- 3、더 많은 전문 인력, 국제단체, 매스 미디어 그리고 ALS 변호사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 경청해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한국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법률 대의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이소아 변호사



# 기초 관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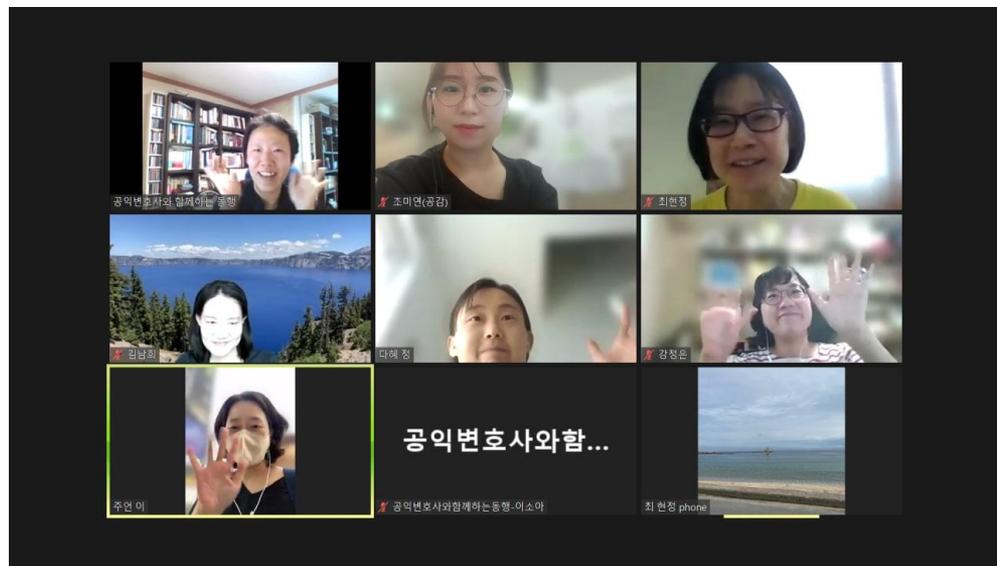
- 당사자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로 인해 장애를 가진 사람
- 관련 법률 : 장애인활동지원법(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련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서비스 관련 법)
- 문제되는 법률 조항 :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먼저 받고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자체를 박탈
- 대리인단 : 민변 소수자위 변호사들(여러 공익단체에 소속됨)

# 끝까지 버틴 당사자 황신애





2020. 6. 14. 헌법재판소 앞 대리인단



2022. 6. 계속된 후속 대응 논의



2020. 6. 14.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2020. 봄- 대리인단 회의





# 법률 대응 일지

---

- 2016. 9. 6. 당사자 A,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서 제출
- 2016. 9. 말. 광주광역시 북구청 변경신청 거부
- 2016. 12. 2. 북구청장을 피고로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광주지방법원2016구합13137)
- 2017. 3. 위 소송 중 소송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2017. 7. 광주지방법원 문제의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청(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17헌가2)
- 2020. 12. 23. 헌법불합치 결정(잠정적용, 2022. 12. 31. 기한)
- 2020. 4. 15. 위 행정소송(광주지방법원2016구합13137) 원고 청구인용(북구청 처분 취소 결정)
- 2020. 5. 중순 북구청 앞 기자회견, 당사자 서비스 제공 촉구
- 2020. 6. 당사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시







## <이후 경과: 싸움은 여전히 계속 중>

---

- 2021. 9. 하순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당사자 B, C 행정소송 시작(광주지방법원) – 2022. 여름 승소
- 2022. 5. 보건복지부 문제 법률 조항 개정. 그러나 잘못된 반향으로 개정. 신청할 절차 규정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음.
- 2022. 9. 27.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당사자 D 행정소송 시작(의정부지방법원)

